

데스크 시각



박진현
편집국 부국장·문화선임기자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은 누구도 생각 못한 ‘깜짝 공약’을 내놓았다. 만약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든든한 ‘문화부시장’을 곁에 두고 서울을 파리, 뉴욕이 부럽지 않은 고품격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파격적인 제안’ 덕분(?)인지 오세훈은 압도적인 표차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그의 ‘희심의 카드’는 당시 정치적인 이해 등이 얽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됐다.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세훈은 문화부시장에 대한 미련이 남았던 듯 하다. 지난 2007년 5월 서울을 ‘떠어치겠다’며 디자인 서울총괄본부를 발족, 공공디자인 분야의 권위자인 권영길 서울대 미대학장을 수장으로 앉혔다. 말이 본부장이지 부시장급에 해당하는 요직이었다.

오 시장이 디자인 본부를 창안한 건 공공디자인을 문화도시의 ‘ABC’로 생각했기 때

광주가 문화도시라고?

문이다. 불거리가 많더라도 도시의 분위기가 ‘문화적’이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는 이유이다.

오 시장의 의욕과 달리,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를 테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한가하게 디자인이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의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고, 이듬해 세계디자인 수도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시민특보 vs 문화특보

지난 4월 부산시는 관 주도의 문화행정을 민간으로 옮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했다. 문화융성을 키워드로 내건 현 정부의 문화정책을 다분히 의식한 행보로, 행정의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새 청사건에 따르면 문화정책 특별보좌관(문화특보) 도입, 개방적 부산문화재단장 임명, 문화창조본부 신설, 시민문화커뮤니티 육성, 문화예술콘텐츠 육성위원회 발족 등이 담겨 있다.

부산시가 문화특보를 쫓겨 든 이유는 중앙 정부와의 가교역할은 물론 지역 문화정책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영화의 도시’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명실상부한 문화의 도시로 몸집을 키우려면 그에 걸맞는 정책과 행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날 말게 전

국 최초로 문화특보를 영입할 예정이다.

부산이 문화특보를 전면에 내세우던 시기, 광주에선 시민 특별보좌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말 시와 시민단체의 가교역할을 맡게 될 ‘채널’로 NGO 출신 인사를 시민특보로 임명했다. 하지만, 시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강운태 시장이 걸끄러운 시민단체들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이라는 설이 나돌았다. 속내 아어쥔듯, 강 시장에선 산적해 있는 문화관련 현안들보다 시민특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드는 게 더 시급했던 모양이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했다가, 최근의 광주 문화계를 표현하는 데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이 있을까 싶다. 개관을 2년 앞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콘텐트와 법인화, 전시·공연예술감독의 부처적 논란으로 조용한 날이 없고, 광주시항은 근무환경의 적법성을 놓고 시와 시항단원들이 소송 중에 있다.

‘문화 광주’ 이끌 컨트롤타워를

이 때문에 지난 1월부터 공식 중인 시향 상임기획자 선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게다가 시의 의욕적으로 추진한 빛고를 문화관 역시 ‘부지 문제’로 올 스톱됐고, 출범 2년째를 맞은 광주문화재단은 채용과 인력관리 등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를 ‘살피 볼’ 여유도 없을 뿐더러 최근 요요하며, 상하이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호재’를 살릴 마스터플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의 핵심적인 문화정책들이 곁돌고 있는 데에는 이들을 관리·감독하고 통합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가장 크다. 최근 전담의 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쟁은 대표적인 예다. 법인화를 밀어붙이려는 문화관 광부에 맞서 지역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구심체가 없는 것이다. 물론 광주에도 지난 2005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과 시 문화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한 문화정책실이 있긴 하다. 하지만 잦은 인사 교체와 낮은 전문성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문화정책실장들의 경우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에 그쳐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자리를 옮겼다.

지금 광주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문화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과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젝트는 성공 여부에 따라 광주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이들 메가 이벤트가 탄력을 받들려면 지역 문화정책들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장기적인 비전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문화 컨트롤타워가 시급한 이유다. 바라건대, 그 사령탑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격’에 맞는 문화부시장이었으면 더 좋겠다. /jhpark@kwangju.co.kr

社說

줄어드는 전남인구 미래가 걱정된다

전남인구가 급속히 줄어 들고 있다. 현재의 감소 추세라면 내년엔 190만 명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2004년에 인구 200만 명이 붕괴된 이후 꼭 10년 만에 10만 명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국의 주민등록 총인구는 5106만 4841명으로 작년 말보다 11만6569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전남은 지난 말 190만9618명이던 인구가 190만6028명으로 3590명이 줄었다. 내년 7월이면 190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광주시는 지난해 말 146만9216명이던 인구가 현재 147만2357명으로 3141명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경우 5년 후에는 150만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전남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미래가 어둡게 여겨진다. 젊은이들의 유출이 심해져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15~24세 인구가 10만 명이 넘게 빠져나가는 추세다. 이는 전남의 인구가 190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광주시는 지난해 말 146만9216명이던 인구가 현재 147만2357명으로 3141명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경우 5년 후에는 150만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전남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미래가 어둡게 여겨진다. 젊은이들의 유출이 심해져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15~24세 인구가 10만 명이 넘게 빠져나가는 추세다. 이는 전남의 인구가 190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광주시는 지난해 말 146만9216명이던 인구가 현재 147만2357명으로 3141명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경우 5년 후에는 150만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동력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건 한마디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체나 공장 등이 별로 없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외지로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고령화마저 뚜렷해 갈수록 피해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 장려정책을 펴고, 귀농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한계가 있다. 전남의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은 무엇보다 역대 정권의 책임이 크다. 영남권으로 3590명이 줄었다. 내년 7월이면 190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광주시는 지난해 말 146만9216명이던 인구가 현재 147만2357명으로 3141명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경우 5년 후에는 150만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은 무엇보다 역대 정권의 책임이 크다. 영남권으로 3590명이 줄었다. 내년 7월이면 190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광주시는 지난해 말 146만9216명이던 인구가 현재 147만2357명으로 3141명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경우 5년 후에는 150만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은 무엇보다 역대 정권의 책임이 크다. 영남권으로 3590명이 줄었다. 내년 7월이면 190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광주시는 지난해 말 146만9216명이던 인구가 현재 147만2357명으로 3141명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경우 5년 후에는 150만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마사지·카지노 하는 게 교사연수인가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학교 생활담당 교사들을 홍콩이나 마카오로 연수를 보내 위유 논란이 일고 있다. 평소 학생생활교육을 맡아 수고하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교육방향을 모색한다지만 대표적인 위락지로 정소를 정한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생활담당 교사에 대해 초·중학교는 5일부터 8일까지 중국 심천·홍콩·마카오 등지로 연수를 보내고, 고교 교사들은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홋카이도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 교사들은 첫날 중국 심천에서 민속소를 관람한 데 이어, 둘째 날은 홍콩의 관광지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 있다. 마카오에서도 이른바 관광지와 세계 최대 규모의 카지노를 들르고, 마사지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이번 연수에 대해 교육청 측은 학교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교사들의 평소 노고

사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연수기간 현지에서 학생지도와 관련한 워크숍을 갖

고, 교류를 통해 생활지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굳이 연수장소를 홍콩이나 마카오로 정한 이유를 묻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두 곳은 세계적인 관광 유흥도시로 오락분위기가 물씬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연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는 교사들이 마카오 카지노에서 밤을 지새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도박과 환락이 떠오르는 곳에서 진정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수긍하는 시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시교육청은 얼마 전에도 교장단 ‘공파 연수’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국제화 시대에 교원들의 해외연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학부모와 시민들이 공감하는 연수가 돼야 한다. 학생들이 비싼 전 기로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공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가.

은펜칼럼

아이들에게 개구쟁이를 허하고 특별한 꿈을 갖게 하자



임명재
약사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고 노력 끝에 그 추세가 약간 꺾였다고 하지만, 살기 어려운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여 결혼의 시기도 늦어지고,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든다. 셋을 갖는 부모는 필시 여유로운 가정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모 자신들의 노후는 포기해야 할 것으로 주변의 걱정을 한 몸애 안게 된다.

어떻게 갖은 아이들이어서 그렇까? 음이야 육아야 키운다.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은 물론이고 엄청난 사교육을 투자한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직업을 갖기를 기원한다. 아이들이 기특해서

인지 부모들의 극성스러운 세뇌가 원인인지 지난 5월의 신문 기사에 소개된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을 조사한 결과가 흥미로웠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초등학교 5~6년 생들에게 설문한 결과에 의하면 1위와 2위가 교사와 공무원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예술가와 연예인을 꼽겠다고 한다. 또 다른 뉴스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연예인 과 교사, 공무원, 전문직 그리고 운동선수상위권에 뽑혔다고 한다.

반짝거리는 눈망울에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선하지만, 나는 이들의 꿈들이 아쉽기만 하다.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을 희망하게 할 수 없을까 고민된다.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만 소극적으로 보이는 꿈을 희망할까?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꿈을 이렇게 방치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초교령학 사회로 치달고 있는 대한민국을 먹어 살릴 수 있을까? 물론 직업의 귀천이 없고 이의를 제기할 분이 많겠지만 이들의 직업은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직업들이거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직업에 비해 미약한 것이다. 교사

와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세금을 사용하는 직업들이다. 우리들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직업들을 갖게 하고 그들이 비좁은 국내보다는 세계로 뻗어나가 경제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배분되고 세금을 통해 국가가 확대되고 결국은 좀 더 충직한 복지체계가 갖춰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첫째는, 개구쟁이와 상상력을 허락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읽는 위인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어린 시절은 하나같이 어려웠고 말쑥꾸러기들이었다. 호기심에 대한 작은 성취와 실패들이 위인들에게 도전의 의식을 불러 넣어 줬고 타인들과 차별성을 갖게 했다. 엄친아였던 위인들은 없었던 것 같다. 아이들이 훌륭하게 커주길 바라지만 부모들은 엄친아가 되기를 기대한다. 말쑥꾸러기를 부끄러워하고 꾸짖는다. 당장 착실하기만을 바랄 뿐 미래에 대한해지를 원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돼서 정년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부모들이 바뀌어야 한다. 둘째는, 사업가나 기업가 그리고 발명가와 같은 연구자들이 좀 더 아이들에게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애플의 창시자이면서 아이폰으로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바꿔버린 스티브 잡스나 인류의 삶을 절단화시킨 빌 게이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제품을 발명해 내고 시장을 지배해나가는 우리나라의 기업가 기업가들 그리고 연구자들을 ‘슈퍼스타 K’ 못지않게 방송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더욱 자주 접하고 그들을 흉내 내고 싶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꿈은 언제 완성되는가?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은 아니다. 40대와 50대에 인생의 절정기에 완성되는 것이다. 대학생들과 젊은 날은 한낱 과정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과정을 거처도, 대학과 젊은 날을 실패하고 고난의 시기를 거타더라도 성취여부는 중년의 나이에 평가되는 것이다. 어른의 바람을 아이의 꿈이라고 각색하지 말자 엉뚱한 아이들의 꿈을 스스로 갖게 하자.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심는 코너입니다.

기고

교사는 누구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가



전상훈
광주 첨단고등학교 교장

어리석은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선생님들은 교장과 학생 사이에서 누구의 눈치를 더 보아야 할까? 생활하면서 누군가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이, 사고나 행동에 있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조직 내에서 관계를 맺는 상대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의 발로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면 학교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눈치’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교사가 자신의 교직성장에 필요한 인사교과를 잘 받기 위해 뒷사람인 교장·교감의 눈치를 살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 교사로서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책무가 무엇이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교육적 소신을 지니기보다 상사의 지시와 명령에 순응하며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제 한 몸 돌리고 일어서는 풀

잎 같은 교사로 살아간다면 그를 진정한 교육자라 부르는 건 어려울 것이다. 학교 공동체가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학교경영자의 뜻을 받들고 힘을 함께 모으는 일이야 학교조직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지만, 교육자 본연의 책무는 뒷전에 두고 상사의 눈치를 과도하게 의식하며 체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은 참다운 교사의 본령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것이다.

교사가 눈치를 보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교장이기보다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어야 한다. 나이도 그리고 학식도 미비한 학생들을, 무엇으로 보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선생님이 두려워해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교육자라면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을 의식하고 또 의식해야만 한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꿈꾸는지, 무엇에 힘들이려고 무엇을 아파하는지를 알아야 바른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가장 쉽게 정의해서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모범전범으로서의 교사가 도덕적·인격적 본(本)을 보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교사는 학생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해야 하고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스스로서 전문적 학습의 연마를 계속함은 물론 스스로의 인간적 품격을

높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육자로 봉직하는 동안,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기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선생님이기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으며, 선생님이기에 자신의 이기심을 버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선생님 노릇 힘들다는 말이 단순히 교과 지식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의 육체적 고단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존과 공감하며 인격을 형성하는 정신적 배움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사소한 언행도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책임의 무게를 통감하는 것이다.

학교 현장이 참으로 뒤죽박죽, 도무지 질서를 찾을 수 없는 혼란의 아수라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의 현실은 과연 무엇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법적·제도적 정비와 보안을 거듭해도 전혀 수그러들지 모르는 학교폭력은 가정과 부모의 무관심 속에 제멋대로 자란 아이들만의 잘못이며, 확실히 선생님이 만류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학교 교사들의 교권추락은 모든 가치를 경제력의 많고 적음으로 가능하는 세태 속에서 선생님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보장 갖기 때문일까? 잘못된 그저 아이들이나 학부모를 탓이고 비뚤어진 세상이 그리 만든 것인가.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과거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물리적 오로든, 심리적오로든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는데, 누가 무

엇이 그들을 자신들에게 폭력을 가한 억압적 환경에 대한 반발로서 또 다른 폭력을 꿈꾸게 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의도하지는 않았을지언정 공부해 시킨다는 미명하에 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여러 형태로 억압하고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라고 볼 때 우리 교육이 그동안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배려나 관심이 부족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권의 추락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하는 사제동행의 길을 걷는다면 애써 존경해 달라 하지 않아도 저들은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와 고마움을 가질 것이다. 제 것 가지고 제 맘대로 살기도 힘든 세상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일은 어찌보면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눈치를 보는 일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존재를 의식하고 좀 더 그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우리 사는 사회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고 살맛나는 세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교육자적 소신도 좇대도 없이 목소리 높은 학생들의 무리한 요구에 질질 끌려가는 처연의 눈치가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길인지 늘 고민하며, 스스로를 성찰의 거울 앞에 세우는 그런 눈치가 많으면 어떤 분쟁 없이 교육은 희망찬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중국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인 한나라는 흉노(匈奴)족에 대적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사실상 방치된 서남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10여 개의 집단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중 야랑(夜郎)국이 가장 강력했다. 야랑국왕 다동(多同)은 자기 세력권을 벗어나 본적이 없었던 지라 자기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큰 줄 알았다. 어느 날 다동은 부하들을 이끌고 영지를 순시하다가 들었다.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부하들은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그야 야랑국이지 어디겠습니까.”

호탕해진 다동은 눈 앞의 높은 산을 가리키며 다시 물었다. “세상에 저보다 더 높은 산이 있을까?”, “저렇게 높은 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윽고 흐르는 물가에 다다랐다. 강이 어디까지 흐를지 시내 정도였다. 다동이 또다시 물었다. “이 물보다 더 넓고 긴 물이 있을까?”, “그런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동은 기고만장했다. 한 무제(武帝) 때인 기원전 122년, 인도로 가던 사신 일행이 야랑국에 들렀다. 환영의 술자리가 한창 무리의자 다동이 사신에게 물었다. “우리 야랑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요?” 사신은 기가 막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한나라에는 군(郡)이 수십 개나 되고, 그 군 하나만 해도 이곳 야랑국보다 몇 배는 큼니다.” 다동은 벌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야랑자대(夜郎自大)’라는 고사가 여기에서 비롯됐다.

일본의 만인이 점입가경이다. 일본은 사람이 바다로서, 고립된 섬나라다. 세계대전 전에는 이렇다할 침략도

받아보지 못했다. 하늘 높은 줄 몰랐으니, 무물만 개구리처럼 자신들이 최고인 줄 착각할만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계가 통합된 ‘지구촌시대’다. 야랑자대는 자기역량과 분수를 모르고 위세를 부린다는 말인데, 정말 일본이 그렇다. 역사에서 배우길 권한다. /홍행기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작가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문 제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 A X 222-8005) 광 고 매 케 임 국 227-9600 (F A X 227-9500) 다 지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